

- 풍요로운 경제도시
- 인재양성 교육도시
- 품격높은 문화도시
- 매력있는 관광도시
- 함께하는 복지도시



www.gunsan.go.kr

열린시정

열린군신

통권 제185호 2012년 8월 24일

발행처 _ 군산시 공보담당관 / 발행인 _ 군산시장 / 전화 _ 063.454.2092 / 전송 _ 063.452.8159

풍(豊)·화(和)·격(格)을 갖춘 군산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시 폭우 피해 복구 총력

민·관·군 하나 되어 수해 복구에 연일 구슬땀

지난 8월 13일 밤사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최고 131mm의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전날부터 군산시에 최고 444mm의 폭우가 내렸다.

군산시는 즉시 전 직원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휴일도 반납한 채 폭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관측 이래 역대 4번째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민들과 시·도·소방공무원, 군부대, 유관 기관, 자매도시,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수해복구에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산항 이용객과 소통하는 거버넌스적인 항만정책 운영



군산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산항 이미지 구축을 위해 민·관이 상호 소통하는 거버넌스적인 항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군산시는 200여 군산항 이용객(업체)에게 시정소식지, 군산항 소식지, 군산항에 대한 견의 서식 등을 제작·발송해 군산시와 군산항 홍보는 물론 군산항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친근한 소통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군산항 소식지에는 군산항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전라북도 관세사 현황, 군산항 종합보세구역 지정,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월별 부두소식, 항만공사 시행 등 이용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군산항 이용객과 군산시와의 친밀도를 높이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항 역사와 유관기관 등 단체·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구축되면 이용객의 목소리가 반영된 고객 지향적인 항만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군산항이 국내·외 항만들의 치열한 물량유치 경쟁구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중국 교역의 선두주자 및 환황해 경제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분	연월	12월	11월	10월	9월
입출	총합	2,148	2,231	2,214	2,214
입	총합	1,124	1,124	1,124	1,124
출	총합	1,024	1,107	1,090	1,090
입출	총합	1,124	1,124	1,124	1,124
입	총합	1,124	1,124	1,124	1,124
출	총합	0	0	0	0

☎ 항만물류과 450-4732

중국 산둥성 동영시 경제사절단 일행 군산 방문



중국 산둥성 동영시 경제사절단 일행이 7월31일에서 8월 1일(2일)까지 군산시를 방문하여 '군산시-동영시 간 경제협력 파트너 협약'을 체결하였다.

방문단(신장우 시장의 11명)은 경제단체 및 기업 간 다양한 실무 교류를 통해 밀접한 경제 무역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으며, 새만금 산업지구

투자유치 브리핑을 받아 군산시와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동영시는 인구 185만 명의 산둥반도 북부 황화 삼각주 지대에 위치한 도시로, 중국 내 석유매장량이 2번째로 많은 지역이며 석유가공 제조업 및 석유관련 기계제품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이 발달해 있는 도시로 한국의 군산시를 비롯한 7개 도시, 일본의 후쿠오카현을 비롯한 7개 지역과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번 경제협력 파트너 협약 체결로 군산시는 중국 산둥성의 여러 지역과의 해상풍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교류 및 협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국제협력과 450-6237

군산 월명야구장 7배 크기, 첨단 임피농공단지 착수

군산시가 국가산단 협력업체 및 소규모 제조업체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영개발로 신규시행하는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8월부터 부지정리 및 단지 내 도로조성, 상하수도 공사 등에 본격 돌입했다. 임피면 축산리 일원에 조성하는 임피농공단지는 면적이 월명야구장 7배 정도 규모인 239,187㎡로 27번국도(군산 익산간)와 접하고, 단지에서 5분 거리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대도시 접근성 및 물류수송 여건이 매우 양호하다. 임피 농공단지는 9월 말부터 면적 176,012㎡, 22개 블록의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하며, 분양가는 평당 38만 원 정도 예상되며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선박 구성 부분제조, 기타 운송장비제조 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 35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지원과 450-6177

2012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군산에서 열려



2012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가 8월22일부터 24일까지 새만금군산자동차경주장에서 열렸다. 2010년도에 시작한 이 대회는 대학생들이 이륜차 125cc 엔진을 이용하여 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직접 설계·제작하여 가속 및 주행경기 등을 통해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로 군산에서는 올해로 3회째 개최하여 전국 82개 대학, 139개 팀이 참가함으로써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했다.

경기는 Baja 부문(Off-Road Type)과 Formula 부문(On-Road Type), 기술 부문(기술아이디어 및 디자인), 연비대회(연비, 최단주행거리)로 진행되었으며, 레이싱의 재미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등 기술 아이디어 차량과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의 차량도 선보여 자동차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에게 축제의 장이 되었다. 참가팀에게는 지원금이 제공되었고, 상위 입상팀은 해외 자동차관련 업체 및 기관 연수 기회를 부여받고 2013년 서울모터쇼에 차량을 전시한다. 또한 이번 자작자동차대회가 자동차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공학관련 우수인재를 유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지역경제과 450-6272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개관 10개월 만에 20만 명 방문

살아있는 박물관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군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개관 10개월 만에 관람객 20만 명을 넘어서 군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많은 방문객이 찾는 이유는 근대문화라는 전시주제의 차별화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애환심이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다.

그동안 근대역사박물관은 다양한 특별기획전(전북의 서화가들, 기증유물 특별전, 오식도 화포의 귀환, 조총동 발굴 유물전, 동국사 보물 특별전, 군산의 6. 25, 근대서화 100년전 등)과 전통문화행사(어린이날 행사 및 민속놀이 행사 등), 원도심 활성화 및 근대문화 홍보를 위한 '근대문화와 함께하는 박물관 음악회', 한국사 연대표 특강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박물관 학술자료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고장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직접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여기에는 각 전시관에서 체험과 안내를 도운 120여 명의 자원봉사자의 노고가 숨어 있었다. 앞으로도 통상적인 유물 전시에 그치지 않는 다양하고 품격 있는 교육·문화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사랑을 이끌어내는 박물관 운영을 한다.

☎ 문화체육과 450-4541



군산전북대병원 예비타당성 통과



그동안 군산지역의 최대 숙원이었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경제성분석(B/C)에서 1.1, 정책적 종합분석(AHP)에서도 0.603의 결과가 나와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의료여건으로 응급환자의 타지역 이송이 빈번하고 의료비 역외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던 군산지역에서 3차 대형병원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 보건사업과 460-3234

군산시, 폐보도블럭 무상공급 나서



군산시가 보도정비 공사 등으로 발생한 폐보도블럭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과 공공기관 등에게 금년 하반기부터 무상으로 공급한다.

그동안 보도정비 공사와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보도블럭은 물량 부족으로 인해 비영리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왔으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함께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급방식을 개선하였다. 공급대상은 시민·공공기관·단체 등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군산시청 건설과에 서면이나 유선으로 접수하면 폐보도블럭 발생 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폐보도블럭이 가정집 화단의 조경석이나 산책로 포장, 주차장 조성 등 쓰임새가 많은 점에 착안해 추진되었으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학교와 군부대 등 대량으로 보도블럭이 필요한 기관에도 도움이 되고 도시경관 조성사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건설과 450-4487

침수차량, 폐차처리 이렇게 하세요

폐차할 때 자동차소유자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가 가능하고, 대리인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폐차 후에는 자동차소유자가 해당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및 신분증을 차량등록관청에 제시하여 말소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자동차 폐차가 완료된다.

일반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자동차소유자 요청 시 폐차장에서 말소등록대행이 법적 의무화 되어 있어 폐차부터 말소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준다. 이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는 소유자에게 발급되지 않고 폐차장 측에서 말소대행을 위해 사용하며 말소까지 이루어진 후에 차량소유자는 최종적으로 말소사실증명서를 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에 압류, 저당 등이 있을 때도 차량 등의 기준에 따라 차량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 말소가 가능하다.

차량이 오래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승용차는 9년 이상,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는 8년 이상, 중·대형승합차는 10년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는 12년 이상된 경우 말소가 가능하다.

한편 침수차량 말소 후 2년 이내에 대체차량 등록 시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자동차손해보험협회장 발행)를,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및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관할 소재지 읍면동장 발행)를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침수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 차량등록사업소 450-4789

호우피해관련 자동차등록 업무시간 연장 실시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자동차등록 업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오후 7시까지 업무를 처리한다.

이번 업무시간 연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 차량을 말소하고 대체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대체취득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인수증명서와 피해사실확인서(해당 읍면동장 발행)를 제출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험협회는 "전부손해증명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를 하고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근거로 발급되며 부분손해의 경우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라도 차량도어, 쉐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와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차량등록사업소 450-4789

군산 청암산 일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박차

군산시가 청암산(군산저수지) 일원에 건강한 미래형 숲 조성을 통한 자연보전과 더불어 전국 명소화를 위해 '청암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청암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은 지난해 2012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녹색사업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됨에 따라 녹색자금 7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3억 원을 더해 총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명품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구불길 전문가, 수목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입부 경관개선 및 만남의 광장, 야생화 들꽃정원, 꽃향기 나무길, 유실수 관찰원, 삼림욕장 및 독서숲, 왕버드나무 수변 및 습지생태관찰장, 전통수 후계림 복원숲 등 다양한 숲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인위적인 느낌을 주는 시설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숲의 기능성 복원을 위해 단풍나무 외 44종 수목과 석창포 외 14종 자생화를 식재하여 미래형 생태숲으로 조성하게 된다.

☎ 산림복지과 450-6214



군산근대역사박물관 8·15 특별전 개최

빼앗은 자와 빼앗긴 자 '우리 땅, 그들만의 축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제67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3일~9월 30일까지 8·15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엽서, 지도, 간행물 등 일본강점기 시대 군산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생활유물자료 50여 점과 1900년대 군산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 20여 점이 전시되며, 일본강점기에 빼앗은 자와 빼앗긴 자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슬픈 역사의 참상을 담은 영상물도 상영된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1940년에 발행된 현존 유일본인 '군산일보'가 공개되는데 일본강점기 군산의 과거 모습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료로 전국 최초로 8·15 특별전을 통해 공개되는 것인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체육과 450-4541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안내

군산지역의 집중호우('12. 8. 3)로 건물, 선박, 자동차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복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지원내역(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제92조에 따른 천재지변, 풍수해 등 재해 지원기준)

감면내용	신청절차	지원결정
건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 이를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1. 지방세 감면 신청서 2. 피해사실확인서(읍·면·동장 발행) 3. 자동차전부손해보험증명서(보험가입회사)	신청일부터 5일
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 감면	1. 지방세 감면 신청서 2. 피해사실확인서(읍·면·동장 발행) 3. 자동차전부손해보험증명서(보험가입회사)	신청일부터 5일

• 감면규모

감면 규모	○취득세 → ① 건물: 파손·멸실된 종전 건물의 연면적 이하 100% 면제 ② 선박: 파손·멸실 종전 선박의 톤수 이하 100% 면제 ③ 자동차·기계장비: 파손·멸실된 종전 자동차 등의 신제품 구입가격
	○자동차세 → 멸실된 시점부터 비과세
	○등록면허세 → 소실된 건축물 복구 시 건축허가

☎ 세무과 454-2430

군산시 폭우 피해 복구 행정력 총동원

■ 재난상황실 가동 및 전 직원 비상 근무 돌입

지난 13일 국지성 폭우로 군산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자 군산시는 새벽 3시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령 및 읍면동 피해복구 현장 출장 지시를 내렸다. 긴급 복구반이 시내 피해 현장 곳곳에 파견되어 복구작업이 시작되었다.



■ 휴일 반납, 피해 복구조 편성해 전 직원 피해복구 활동



13일 새벽부터 비상근무를 시작한 군산시 전 직원은 20개 읍면동 수해피해 지역에서 복구의 손길을 이어갔다.

특히 피해가 컸던 문화동 삼성아파트, 현대코아, 나운동 현대2차아파트, 한길문고, 소룡동 성원상떼빌, 양계장 등에서 중점 복구작업이 이뤄졌으며 각 관과소별로 피해복구조가 편성되어 휴일도 반납한 채 지속적으로 복구활동을 펼쳐 복구가 시작된 13일부터 22일까지 투입된 인원만도 8,700여 명에 이른다.



- ▶ 약취와 폭염속에서 4만 5천 수의 닭이 폐사한 대야와 옥서 양계농가 복구
- ▶ 옥구 어은리 방울토마토 농가 복구지원
- ▶ 평화동 일대 상가에서 침수된 상품 이동 및 세탁, 침수주택의 가재도구 정리, 토사 제거
- ▶ 산북주공아파트 앞 산사태가 발생한 상가 쓰레기 정리와 야산의 토사물 제거
- ▶ 소룡동 성원상떼빌 아파트 지하주차장 토사 제거 및 살수 작업



- ▶ 나운동 서점에서 침수로 뭉개진 책 분류
- ▶ 성산면 성흥사 진입로 토사정리 및 자갈 포설
- ▶ 토사유출로 끊긴 서수면 서수리 등산로 복구
- ▶ 도복벼를 세우고 논으로 유입된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군산시 전 직원들이 피해현장 곳곳에서 힘을 모아 구슬땀을 흘리며 재해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 방재장비, 청소차량 지원 등 복구작업 총력

방재장비를 총동원해 침수피해를 입은 공장과 아파트 등의 긴급 배수작업, 빨래방 차량 지원, 수해지역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청소차 및 집게차 등을 집중 투입, 특별방역소독, 사회복지시설 복구, 임시급수시설 및 급수차량을 활용하여 단수지역에 비상급수를 하고 자원봉사자 무료급식을 위해 밥차를 지원했다.

공무원노동조합도 나운동의 지하수영장에서 복구활동을 벌여 시민과 함께하는 노조상을 실천했다. 또한 유관기관 등 각종 봉사단체의 지원손길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여 수해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2012년 을지연습도 빠른 피해 복구와 민생안전을 위하여 연습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빠르고 체계적인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인근 지역 피해 복구활동

전라북도 체계적인 응급복구 지원

전라북도는 비상체제를 응급복구에 이어 체계적인 복구지원 형태로 전환하고, 이재민 등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구호금과 응급 구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지방세 감면, 학자금 지원 등 각 분야별 전북도 자체 지원책 마련에 돌입했다.

전북경찰, 수해지역 복구활동 '구슬땀'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700여 명의 경력을 배치, 침수 가옥 진흙제거와 거리 청소 등 복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전북소방안전본부 전 직원 비상소집

전북소방안전본부는 13일 새벽부터 전 직원을 비상 소집해 침수된 주택가, 상가 등에서 급·배수지원과 인명구조 활동을 벌였다.

특히 서군산변전소 긴급배수작업으로 대규모 정전사태를 방지하였다.



한전 전북본부, 종합상황실 마련

한전 전북본부는 군산지사에 폭우피해복구 종합상황실을 마련, 인근 사업장 배전복구인력을 긴급 합류시켜 비상복구반, 복구지원반, 홍보반 등 총 5개소를 편성 운영했다.

35사단, 응급복구 활동에 장병 투입

35사단은 호우피해가 발생하자 즉시 장병을 투입하여 산단 지역 30여 개 침수피해 기업에서 응급복구 활동을 벌이고 문화동, 나운동 등 시내 일대의 아파트 및 주택침수지역과 산사태 지역에서 양수작업과 토사제거 등 신속한 복구활동을 펼쳤다.

군산해경, 배수펌프 등 동원 복구 지원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들도 수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문화동 현대코아와 삼성아파트를 찾아 밀려온 토사를 제거하고, 집기류를 정리·세척하고 특히 배수펌프, 잠수펌프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실시했다.



군산시 수해피해 지역에 온정의 손길 이어져

최고 444mm의 집중 폭우로 주택 및 상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군산시 수해 복구 현장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민, 관, 군 각계각층의 인력지원 줄이어

- KT군산본부에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나운2동 현대2차아파트의 인터넷 등 통신 긴급 복구를 했고
- 열관리협회,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LP가스협회 전기안전공사 등 5개기관은 단독주택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취사·난방시설을 점검했다.
- 옥도면 선유도에서는 효창건설에서 살수차를 지원하여 도로로 밀려온 토사를 처리하였으며,
- 수송동 통장협의회에서는 수재민 무료 급식소를 운영, 이에 따른 부식비 지원과 급식봉사를 했다.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생수 1000병과 응급구호세트를 긴급 지원하고 세탁구호차량 2대를 동원해 세탁구호 활동을 펼쳤다.
-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전주와 군산 지역 단원 20여 명은 월명동 영화주택을 찾아 침수가구 배수 및 토사제거 작업, 생활쓰레기 정리 작업을 벌이고 생수 4000병을 지원했다.
- 전북대학교와 군산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220여 명이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서 나운동 한길문고, 동아서적, 현대 2차 아파트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밀려온 토사를 제거하고 서적 등 집기류를 세척·정리했다.
- 만남, 다소니, 모두, 세광, 청소년사랑 실천, 디딤돌 등 지역봉사단체 500여 명은 가재도구 정리와 침수가구 빨래 등의 자원봉사로 따뜻한 이웃의 온정을 나눴으며
- 새마을회, SGI, 여성단체, 성광교회, 주부교실, 여성봉사회 등 직능단체 220여 명은 이재민들을 위해 밥차 배식 및 빨래방 차량 운행으로 온정의 손길을 이어갔다.
- 이 밖에도 9585부대, 공군38전대, 군산경찰서, 해양경찰서, 군산소방서 등 민, 관, 군을 망라한 각계각층의 수해복구 지원활동이 계속되어 22일 현재 자원봉사 인원은 총 15,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생필품, 성금 전달도 이어져

- (주)에스틸 김용석 회장은 지난 16일 수재민 성금 천만 원을 기탁했고,
-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SK텔레콤은 생필품키트 350세트를 수해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 수송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수강생 일동은 25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포크레인, 삽 등 작업장비를, 기관장모임에서는 30만 원, 발전위원회는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 이성당 빵 600개, 대한생명은 구호 생필품 3,000개를 지원하고, 지곡상가 번영회에서는 라면, 생수 등 50만 원 상당의 물품,
- 전라북도 의사회는 450만 원 상당의 수건 1,500장을 기탁하였고
- 삼립식품에서는 빵과 생수를 각 3,000개 지원해 피해 읍면동을 통해 배부했으며
- 롯데마트, 롯데주류, 전북은행(시청지점), 농협(시청지점)에서도 생수, 과일 등을 제공하였다.
-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이재민 120 세대에게 응급구호품을 전달했고,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원 60여 명을 투입해 침수지역 복구 작업을 하고 긴급구호 급식차를 설치하여 500여 명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 흥양산업, 대두식품, 군산제과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등 식품관련업체 및 단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하였다.
- 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방행정동우회군산지회, 은적사,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전북은행, 전북신협 두손모아 봉사단, 군산시 시민체육회, (주)대가산업, (주)금호환경 등도 성금을 기탁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개인, 단체, 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도움에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도 성금·성품이 답지하여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구호성금은 22일 현재 총 1억 5000여만 원이 모금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하였으며, 1억여만 원 상당의 생필품, 생수, 라면 등의 구호물품이 접수되어 군산시 수재민 2,000여 세대에게 재기의 희망을 나누어 주었다.

수마가 할권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수해복구 지원

군산시 자매 도시들이 연일 방문해 온정을 전했다. 서울 강남구청은 군산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실시했으며 라면, 세제 등 생필품과 함께 방역차량 3대, 앰블런스 2대를 지원했다.



김천시는 1.8리터 생수 3,000개를, 대구 동구청이 2.5톤 트럭 2대 분량의 생수와 100만원 상당의 즉석밥, 컵라면 등을 전했다.



동작구청도 생수, 음료수 등 생필품을 전달했고, 뒤를 이어 제주도 서귀포시청에서도 항공택배를 통해 2리터 생수 384박스를 보내왔다.

공군38전대, 폭우피해 주민 복구작업 지원

공군 제38전주비행전대는 장병을 동원해 침수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조촌동과 신평동 침수 피해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비상식량을 배부하는 등 휴일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복구작업 인력을 지원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각 지부, 폭우피해 입은 군산 지원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등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지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산시 일대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서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수해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자원봉사자들은 문화동과 나운동의 침수된 주택, 상가의 도로 정비와 쓰레기 수거, 침수가구 토사제거, 가재도구 세척 등의 수해복구 활동을 도왔다.

전북방역협회 및 서울시 강남구·영등포구 보건소 방역소독 및 민·관합동 의료 활동

익산, 김제, 정읍, 완주 등 전북 방역협회는 합동 방역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예방 약품을 배부하였다. 또한 동군산 병원, 차병원, 강남구보건소가 참여한 의료반을 편성해 시민문화회관, 성원쌍데빌@, 현대2차@, 신평동에 파견하여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침수로 인한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 및 응급환자 처치 등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자원봉사자 격려·성금 전달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수해 복구 현장에 방문해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군산시에 성금을 전달하여 시민들과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 리포터소식 |

폭염, 월명공원에서 익으세요



사상 유례 없는 살인적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월명공원 곳곳에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적지 않아 시민들의 여름나기 최고의 장소로 꼽히고 있다.

가장 먼저 땀을 흘리며 등산을 하지 않고도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곳은 금동에 위치한 해망굴이다.

총 길이 131m · 높이 4.5m 규모로 일제 강점기에 축조된 해망굴은 바다를 낀

해망동과 월명공원이 합작한 바람을 내 뿜는 길이다.

다음으로는 20~30분 가량 등산을 해서 오를 수 있는 곳으로 월명공원 중심 꼭대기에 아담 하면서 당당한 위용을 드러내는 점방산 정상이다. 사방에서 불어대는 청량한 바람이 폐부 깊숙이 밀려드는 순간 송골송골 콧등에 맺힌 땀도, 맹렬한 더위도 저만치 달아난다.

시원하게 확 트인 서해바다와 거대한 아파트촌이 일대 장관을 이룬 군산 시가지와 황금 평야가 연출하는 절묘한 앙상블은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이밖에도 월명공원 곳곳에 자리한 편백나무 숲터는 시원한 바람과 피톤치드를 함께 접할 수 있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곳이다.

리포터 - 고덕자 -

국내 유일한 일본식 사찰 동국사를 찾아서



햇볕이 늦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 지난 화요일 군산 도심에 있는 동국사를 찾았다. 국내 유일한 일본식 사찰 동국사를 찾아가는 초입에는 동국사에서 출가한 우리 지역 고은 시인의 시화 작품이 먼저 방문객들을 반겼다.

"군산에 첫 차 타고

떠나는 삼촌

그 삼촌 손 들어 작별하던 곳"

사찰은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었으며

타 지역에서 군산의 근대역사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신기한 듯이 경내를 돌아보고 있었다.

"일본식 사찰을 보니 꼭 일본에 온 듯합니다. 먼저 근대 역사 박물관을 둘러보고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를 보러 왔습니다. 뒤에 있는 대나무 숲도 사찰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멀리 경기도 파주에서 왔다는 가족들의 모습이 더욱 더 경건하며 아름답게 보였다.

리포터 - 김선미 -

"수재민을 위해 밤차" 봉사를 찾아서



지난 월요일 군산에 4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한다.

물 폭탄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졌으며 그로 인해 엄청난 양의 피해가 났으며 수재민도 발생을 하였다.

갑자기 재난을 입은 수재민을 위해 월명중학교로 자원봉사자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밤차를 운영하였다.

"많은 비로 인해 몸과 마음 고생을 하게 된 우리 이웃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나누어 주고 싶어 왔습니다. 빨리 복구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밤이 힘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과 봉사자들의 맛있는 밥과 찌개가 있어 수재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빌었다.

리포터 - 오정애 -

게시판

군산시 유망 중소기업 소개 16

디에스엔(주)

■ 주생산품 : MULTI CORE TUBE(다심관), STAINLESS STEEL TUBE

■ 기업특성

- 2006년 07월 디에스엔(주) 설립
- 2007년 07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2009년 05월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 2009년 06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2011년 08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정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2011년 10월 CLEAN 사업장 인정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011년 12월 공장충족 (생산동, 연구개발실, 기숙사동)
- 2012년 06월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 대표자 : 이영임
- 전화번호 : 063-451-0237
- 종사자수 : 15명
- 연매출액 : 61억원 (2011년 수출실적)

군산시 동가도길 20-31 (군산2국가산업단지내)

☎ 투자지원과 450-4198

청년취업 2000사업 제4차 참여기업 모집

■ 신청기간 : 2012. 8. 20 ~ 9. 7

※ 2012. 8. 1 ~ 8. 31일까지 신규채용자에 한함

- 지원자격
 - 군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청년 실업자 채용 및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인 업체
 - 채용일 현재 미취업 상태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전북도민을 신규채용한 업체

■ 지원내용 : ○ 청년취업 수습기간중 지원금 : 1인당 월 80만 원씩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 1인당 월 80만 원씩 9개월

■ 지원한도 : 2012. 5~7월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평균수의 30% 이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 우편접수의 경우 9월 7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군산시 투자지원과 (☎ 450-4723)

2013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2. 8. 22 ~ 9. 5

♣ 참여대상 : 군산시 예산에 관심을 가진 모든 시민

♣ 조사내용 : 2013년도 예산 및 재정운영 방향

♣ 참여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

- 시홈페이지 : 상단우측 시민마당 ⇒ 설문조사

♣ 문의처 : 기획예산과(☎063-450-4212, 6105)



시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맞이 행사 안내

「초등 고전 읽기 혁명 저자 초청강연회」

강 연

■ 일 시 : 2012. 9. 1(토) 10:00~12:00

■ 장 소 : 교양문화실(5층)

■ 대 상(인원) : 성인(70명)

■ 강 사 : 송재환(초등고전읽기혁명 저자)

■ 내 용 :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는 고전 읽기의 방법 소개



「도서관에서 즐기는 팡팡 매직쇼」

공 연

■ 일 시 : 2012. 9. 8(토) 11:00~12:00

■ 장 소 : 새만금드림홀(지하층)

■ 대 상(인원) : 군산시민(170명)

■ 공 연 : 문팩토리 매직엔터테인먼트

■ 내 용 : 온가족이 즐기는 스토리, 코미디 매직쇼



「과 월호 잡지 배부 및 책 나누기 행사」

나눔 행사

■ 일 시 : 2012. 9. 8(토) 12:00~15:00

■ 장 소 : 도서관 정문

■ 대 상(인원) : 군산시민

■ 수 량 : 총 1,092권 (잡지 760권, 도서 332권)

■ 배부방법 : 시민 1인당 3권씩



- 접수 -
강연회, 매직쇼

• 접수기간 : 2012. 8. 20(월) 10:00 ~ 마감 전까지

• 참가방법 : 사전신청(선착순)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홈페이지)

☎ 시립도서관 450-4456



| 군 | 산 | 시 | 의 | 회 | 소 | 식 |

폭우 피해 군산,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라!

군산시의회 성명서 통해 강력 촉구



군산시의회가 기록적인 폭우로 500억 원대의 피해를 입은 군산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폭우로 도로유실과 산사태, 농경지 침수는 물론이고 상가와 아파트,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 재산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관·군이 하나되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나 피해 범위가 도시기반시설에 집중된데다 피해액이 너무 큰 실정으로 정부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전북도청, 소방방재청 등에 발송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의회, 집중호우 피해대책 마련 분주

- 시의원들은 해당 지역구별 피해상황 일제 점검 나서 -



8월 13일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집중폭우로 저지대의 도로와 산사태 등 피해가 속출했다. 작업복을 차려입은 시의원들은 해당 지역구의 피해상황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군산시의회 의장(강태창) 일행은 군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며,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와 배수작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 대책마련과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일제 수용 촉구 '성명서' 발표

최근 롯데쇼핑(주)의 4개 재벌유통업체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군산시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6일, 군산시의회는 '대형마트와 SSM은 소탐대실의 가처분소송 중단과 의무휴일제 수용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전달했다.

군산시의회는 재벌 유통업체가 지역경제를 위협하며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국내 유명 법률회사를 고용하여 정착되어 가는 의무휴일제를 무산시키려는 법적 소송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재벌기업의 오만한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그 동안 군산시의회는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고사 직전인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재래시장 장보기는 물론 시민단체와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K.C.N (금강방송) 대담 의정활동

지난달 27일과 30일 금강방송에서 제6대 후반기 시의회의 역할과 과제(시사토론)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방안과 역할(초대석)에 대한 의정활동 대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강태창 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시의회' 의정 목표와 정책방향 등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밝혔다. 또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중점 해결방안과 대책마련을 제시했다.



【시사토론】- 시의회 후반기, 역할과 과제
【초대석】- 지역 현안사업 해결방안과 역할



|시조| 갈매기

거친바다의 풍파를 박차고 비상하는 모습의 군산 기상은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려는 군산시의 높은 이상과 진취적 기상을 상징.



|시화| 동백꽃

꽃잎이 붉어 “여심화”라고도 하며 속수술이 노랑색으로 평화를 상징하고 서리와 눈 속에서도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꽃으로 우리 지역 해안과 월명공원에 많이 자생하며 평화와 정절을 숭상하는 시민 정신을 상징.



|시목| 은행나무

부채모양의 푸른 잎과 열매는 약재로 널리 쓰이며, 종해가 없는 무궁한 생명력을 가진 청정한 나무로써 우리 지역에 가로수와 정자나무 등으로 많이 심어져 있으며, 군산시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

길 전라북도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사위로 길을 묻다

- 일 시 : 2012. 9. 3(월) 19:30
- 장 소 : 군산시민문화회관
- 주 최 : 전라북도립국악원, 군산시
- 문 의 : 063)290-5531~4, 6450

※무료, 8세 이상 관람 가능

『2012년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2. 8. 1)현재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납부기간 : 2012. 8. 16 ~ 8. 31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또는 전자납부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전자금융 납부
 - 가상계좌(납세자명역)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 납부
- 고지서 재발급 및 문의사항
 - ▶군산시청 세무과 ☎ 450-4297, 4255

새만금 아카데미 제8강좌 안내

- 일 시 : 2012. 9. 13 14:45 ~ 17:00
- 장 소 : 군산시청 아카데미홀
- 참여대상 : 시민, 청원
- 강 사 : 시인 김용택
- 주 제 : 문학과 예술을 통해 세상을 디자인한다.

☎ 인재양성과 450-6174

제50주년 군산시민의 날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

- ♣ 참가자 접수
 - ▶접수기간 : 2012. 9. 10 ~ 9. 27
 - ▶접 수 처 : 군산시(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예 심
 - ▶일 시 : 2012. 9. 27 (목) 오후 1시부터
 - ▶장 소 : 군산시청 대강당(2층)
- ♣ 녹 화
 - ▶일 시 : 2012. 10. 5 (금) 오후 1시
 - ▶장 소 : 미정
- ♣ 접수문의 : 군산시청 총무과 450-4237/4238

시립합창단 제68회 정기연주회

- 일 시 : 2012. 9. 7(금) 19:30
- 장 소 : 시민문화회관
- 내 용 : 가을의 클래식 "Classic of Autumn"(협연 출연 소리꾼 김흥업)

☎ 문화체육과 450-6125

건강과 행복을 담아가는 구불길 도보여행 안전수칙을 알려드립니다.

- ▶오전 9시 이후에 여럿이 모여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걷기
- ▶여성이나 노약자는 여름철 오후 6시, 겨울철 오후 5시 이후 도보 자제하기
- ▶가족이나 지인과 비상연락망 구축하고 긴급연락처 숙지하기
- ▶걷는 구간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보호장구 철저히 준비하기
- ▶민가 지역의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가축이 놀라지 않게 걷기
- ▶여행하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 ▶도로로 걸을 시 자동차를 마주보고 한 줄로 걷기
- ▶현금은 조금만 준비하고 휴식시 신발과 배낭 등 도난 조심하기
- ▶걸으면서 음악을 듣기보다는 자연의 소리를 듣기
- ▶쉬었던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해서 흔적 남기지 않기
- ▶태풍과 폭우 뒤에는 도보를 삼가고 노면상태 확인하며 걷기
- ▶되도록 긴 바지와 긴 팔을 착용하여 내 몸을 보호하기
- ▶리본부착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절대 금지

타인을 배려하는 에티켓으로 길벗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보일정 | 매주 수·토요일 정기도보 운영 실시 | 문의전화 | 063)450-6110
자세한 사항은 카페 <http://cafe.daum.net/gubulgil> 를 참조하세요!!

2012 지역사회건강조사

- 조사목적 :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기반 마련
- 조사대상 : 450가구(표본가구 선정)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
- 조사인원 : 900명
- 조사기간 : 2012년 8월 16일 ~ 10월 31일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 조사
- 조사내용 : 건강행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 건강관리과 460-3236

수해피해 이재민돕기 성금 모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실의에 잠긴 피해주민들이 하루속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나눔의 정성을 모아 주세요.

- 사업기관 :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모금기간 : 2012년 8월 21일 ~ 9월 15일
- 송금계좌 : ▶농 협 : 301-0037-6699-71
▶전북은행 : 505-13-0339836 (예금주 :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전북사랑의 열매 모금사업팀 282-0606